

글로벌 주식전략

미 대선 TV 토론 : 판을 바꿀 수 있을까

분석의 기본 가정

- 금융시장은 TV 토론의 승자를 해리스로 반영하며 해리스 트레이딩의 흐름이 포착됨
- 정치적 변수보다는 시장 변동성을 경계해야→필수소비재/유트리티, 부동산 선호 유지

해외주식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nyoung.com

TV 토론은 끝났지만 시장 변동성은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카멀라 해리스의 토론은 지난 1차 토론과 유사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양 후보 모두 새롭게 정책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존 의견을 어필하고 상대의 의견을 먼저 언급하며 대치상황을 이어나가는 전략을 선택한 듯하다.

이번 TV토론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해리스에게 불리하다는 평이 다수였으나, 일단 금융시장은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TV토론 직후 아시아 대표 증시들은 시장 전체지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업종이 반등하였다. 또한, 비트코인도 TV 토론을 기점으로 낙폭을 확대하며 해리스 트레이딩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증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일명 해리스 수혜업종(태양광, 풍력, 2차전지 등)은 상승하고 트럼프 수혜업종(비트코인, 방산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선방했으나 1)당선확률/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2)양 후보 모두 토론에서 기존에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특정 후보의 수혜 업종에 대한 배팅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정치적 변수보다는 시장 변동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저변동성과 관련된 필수소비재/유트리티, 금리 인하의 수혜가 기대되는 부동산 업종이 연말까지는 유의미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도표 1. 해리스 트레이딩 vs. 트럼프 트레이딩 (신재생 에너지 vs. 비트코인/방산)



주) 2024.09.11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TV토론 브리프

(1) 한 줄 요약 : 예상보다 잘한 해리스, 예상대로였던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새로운 정책 구체화 보다는 기존 의견을 어필하는 데 초점

지난 10일(현지시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카밀라 해리스(이하 해리스)의 토론은 1차 토론과 유사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1차 토론과 동일하게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제를 시작으로 관세/세제혜택, 낙태권, 불법 이민, 외교, 범죄/치안까지 넓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두 후보 모두 새롭게 정책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존 의견을 어필하고 상대의 의견을 먼저 언급하며 대치상황을 이어나가는 전략을 택했다.

예상과 달리 선방한 해리스,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지는 못한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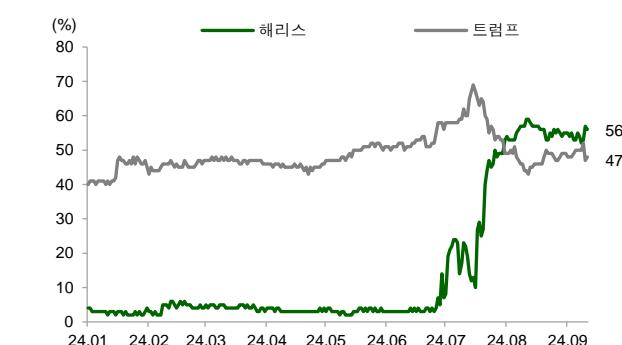
이번 TV토론은 이미 3번째 대선에 도전중인 트럼프와 달리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해리스에게 불리하다는 평이 다수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먼저 약수를 청하고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기도 하고 토론 중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주시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트럼프도 1차 토론과 유사하게 차분한 톤으로 토론을 시작했으나 불법이민과 범죄 문제를 언급할 때 다소 과격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도표 2. TV 토론에서 먼저 약수를 청한 해리스



자료 : CNB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해리스 vs. 트럼프 당선 확률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정책 : 선거유세, 전당대회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들

해리스
: 중산층, 검사 출신 강조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가
궁극적 목적임을 언급

해리스는 중산층을 본인이 중산층의 자녀임을 강조하며 공약 설명을 시작했다. 또한, 현재 기소당한 상태인 트럼프와 달리 자신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검사출신임을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통령으로서는 프래킹(세일 채굴 방식 중 하나)에 반대한적이 없으며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 재임시절 경제 성과 강조
관세는 미국이 아닌 해외
(특히 중국)에 비용 전가임

트럼프의 경우 지금까지의 입장과 크게 변화된 답변은 없었다. 경제 정책의 경우 과거 재임시절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주식시장을 포함해 경제상황이 좋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의 경우 미국인들이 아니라 해외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도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이민과 범죄율 상승이 현 정부에서 일어났기에 해리스의 책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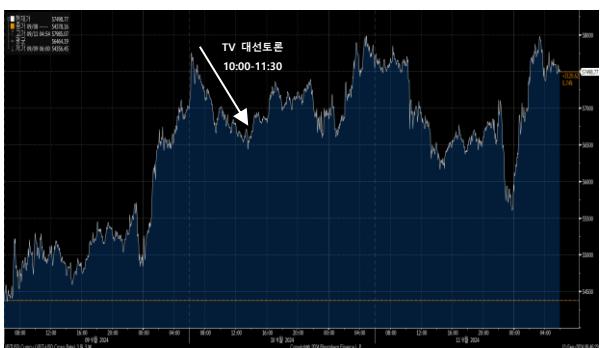
(3) 시장의 판단 : 해리스 WIN

해리스 트레이딩이
나타난 금융 시장
: 비트코인 ↓,
신재생에너지 업종 ↑

일단 금융시장은 이번 TV 토론의 승리자가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친환경에너지 분류되는 자산인 비트코인이 TV 토론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낙폭을 확대하며 해리스 트레이딩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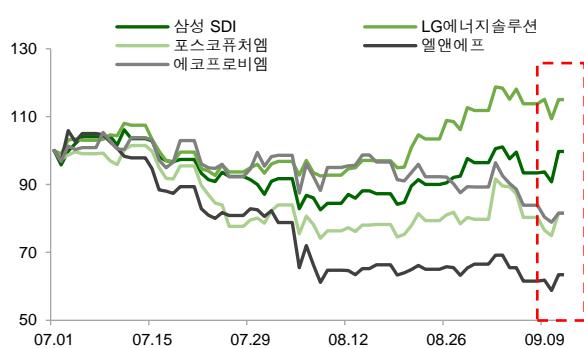
또한, TV토론 직후 아시아 대표 증시들은 시장 전체지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업종이 반등하였다. 한국에서는 2차전지 셀, 소재 업체들이 반등에 성공했고, 중국에서는 태양광 업체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증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그동안 부진했던 풍력 업체들이 반등하였다.

도표 4. TV 토론 직후 비트코인 움직임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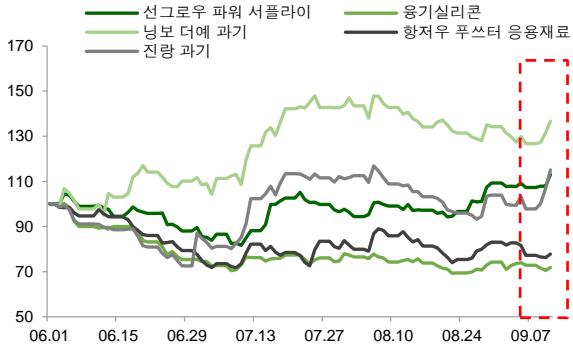
도표 5. 한국 주요 2차전지 업체 주가 추이



주) 2024.09.11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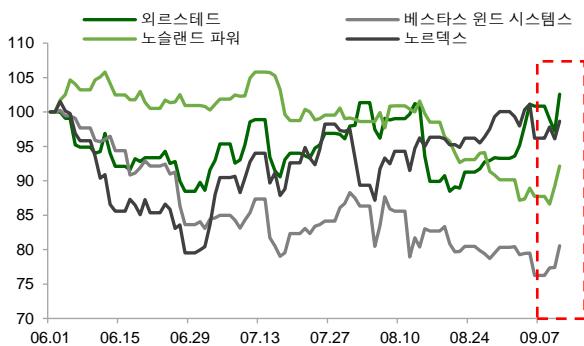
도표 6. 중국 주요 태양광 업체 주가 추이



주) 2024.09.11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유럽 주요 풍력 업체 주가 추이



주) 2024.09.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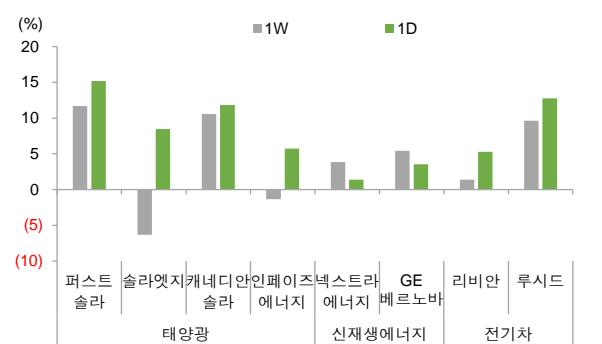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선회한 미 증시

TV 토론(현지시간 10일)의 여파는 다음날 미국 증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명 해리스 수혜업종(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기차/2차전지 등)은 상승하고 트럼프 수혜업종(방산, 암호화폐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피습 및 1차 TV토론 기간 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타났던 것과는 정반대로 해리스 트레이딩의 시작일 수 있다.

도표 8. 해리스 수혜업종(신재생에너지)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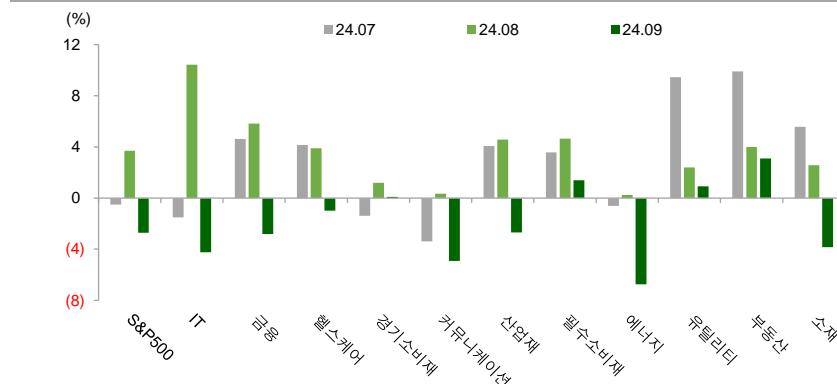


주) 2024.09.11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말까지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
· 필수소비재/유트리티/
부동산 선호 관점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선방했으나 1)당선확률/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2) 양 후보 모두 토론에서 기존에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TV토론의 반응과 대선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의 수혜업종에 대한 배팅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정치적 변수보다는 시장 변동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저변동성과 관련된 필수소비재/유트리티, 금리 인하의 수혜가 기대되는 부동산 업종이 연말까지는 유의미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도표 10. S&P500 업종별 MTD



주) 24.09 는 2024.09.11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